

전주의 100년 후 문화유산 찾는다

한옥 등 전주만의 문화자산 발굴해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선정 통해 보존키로

전주시가 구도심 내 한옥 등 건축자산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100년 후 전주를 대표하는 보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 전주의 문화유산을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관리하고,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와 생활, 도시, 문화예술 등 미래유산보존위원회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전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유산 선정 및 보존 관련 사항은 박순종 전주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역사학자와 문화재전문가, 일반시민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맡게 된다.

특히, 시는 위원회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추억을 담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보존·활용해 전주시의 미래 보물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산하 역사·생활·도시·문화예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유산 세부선정기준안을 마련한 상태로, 오는 11월에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선정기준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에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2017 전주시 미래유산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미래유산 표시



국감 준비 철저히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3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며, 이후 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미래유산을 활용한 시민·관광객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의 100년 후의 보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에는 시민들이 직접 전주시 미래유산의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와 오래됐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을 통해 전주시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문화유

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소멸될 우려가 있는 한옥 등 구도심 내 건축자산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기 위해 '전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발굴된 19동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미래유산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도시의 구성원이자 기억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유산 선정을 통해 100년 후 전주를 빛낼 보물들을 찾아내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화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각종 개발 등 사회변화 속에 전주시민들의 삶에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에서 미래유산은 점점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속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현금 900만원을 찾아 송금하려는 것을 전화금

용사기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하고 시간을 지연시켜 피해를 막았다. 해당 직원은 "힘들게 저축한 돈의 피해를 막아 주어 내일처럼 기쁘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시, 아동 정책제안 결과 간담회 개최

'어린이옹호활동가 캠프' 제안 13개 정책 검토 완료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전주시가 지역 아동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아동 39명, 부모 14명, 세브라치드런 전북지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옹호활동가들이 제안한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환경' 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의 추진 가능여부 및 추진사항 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주시 아동생각나눔단 등 지역 내 초등생 65명과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어린이옹호활동가 캠프'에서 아동의 정책제안 답변자로 초대받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월에 전주시로 초청해 정책제안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는 아동과의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며,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어린이옹호활동가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전주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놀이터 환경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물로 총 13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10개 실무부서의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스스로 제안한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오송초 6학년)은 "전주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 바쁘신 시장님이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정책 제안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나와 내 친구, 아이들이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동네 놀이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가득 담은 참석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세계가 인정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정책 TF팀을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덕진 호성파출소,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 방법진단 실시

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19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정미소 등을 방문해 농산물 절도 및 농가 빈집일치 대비 방법진단을 실시했다.

해마다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강화와 항공순찰 등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혜성 파출소장은 "농촌마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를 실시해 농산물 절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조작가능한 펜 사용 조업일지 작성 중국어선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경제수역어업권법 위반 혐의로 120급 저인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km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불심검문해 지울 수 있는 일반 중성펜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어업협정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조업일지 작성 시 조업위치와 조업량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작성하도록 돼있다.

해당 중국어선은 적발 당일 담보금 2,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이성민 기자

부안여고 특감... 성추행 등 14개 분야 적발

교원 15명 교직원 등 5명 징계 통보... 재정상 조치도

전북도교육청은 여고생 제자들에게 대한 성추행과 폭언 등을 해 논란이 됐던 부안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서 6월23일부터 진행해 왔던 부안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교사들의 성추행과 폭언, 체벌, 출장 여비 부당지급 등 14개 분야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 교원 15명과 교직원 등 5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교직원 44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대상에 올랐다.

또한 회수(약 920만원)와 추급(약

160만원), 공사 재시공(약 190만원) 등 재정상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재 구축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체육교사 A씨는 논란이 됐던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 등을 상습적으로 한 것 외에도 부적절한 체벌, 언어폭력, 선물 강요, 생활기록부 조작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인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선물요구와 직무태만, 욕설, 학사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에 징계를 요구 받은 교사는 위 사례를 포함한 중징계 6명(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4명)과 경징계 3명, 경고 9명, 주의 2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성추행,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처리하지 않았다"며 "특히 동료 교사들의 묵인 및 방관이 사건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안여고가 해당 지역의 유일한 여고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리가 일어났다는 학부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택권 확보를 위해 부안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성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